

## 개혁주의 주경 신학자 박 윤 선 박사

심 군 식 목사  
(예장 고신 총무/본지 편집인)

주경(註經)신학자로 신구약 성경 주석을 완간한 박윤선(朴允善)목사는 1905년 1월 23일 평북 칠산군 백량면 장평동에서 부친 박근수씨와 모친 김진신 사이에 2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부친은 근면하고 정직한 농부였다.

9 세부터 서당에 나가 한학을 공부하였다. 17 세가 되기까지 사서삼경을 통달하였다. 거진 외우다시피 하였다. 그의 성경 주석에 사서삼경이 많이 인용되는 것은 그때의 기억을 활용한 것이었다. 가난한 농가에서 윤선은 봄, 여름, 가을엔 산으로, 들로, 소를 몰고 나가 풀을 먹이며 한학을 공부하였다.

17 세가 되던 해에 교회를 찾았고 복음을 받았다. 주일이면 시오리 길을 걸어 교회로 찾아가 예배에 참석하였다. 당시엔 남녀 좌석을 휘장으로 막아 놓고 예배 드렸다.

1923년 18 세가 되던 해 선천군 군산면 장공동에 있는 대동 소학교에 입학하였다. 1학년이 아니라 6학년에 편입이 된 셈이다. 이 학교는 기독교인이었던 김도순씨가 세운 학교였다.

이 학교는 아침마다 예배 시간이 있었고, 주일에는 교실에 모여 예배 드렸다.

그 해 겨울 방학 때 18 세 나이로 결혼을 했다. 부모의 권유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15 세의 김애련 규수와 결혼을 한 셈이었다.

다음해 1924년 봄에 대동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1 년 동안에 소학교 전과정을 다 마치고 최우등으로 졸업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명석한 두뇌

의 소유자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924년에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 중학교 2학년에 편입을 하였다. 그러나 한 학기 공부하고 학생들이 이구하 교장 배척 데모를 하였다. 이 일로 학교는 휴교가 되고 윤선은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천에 있는 신성중학교에 가서 3학년 보결 시험을 쳤다. 세 사람이 쳤는데 윤선 혼자 합격이 되었다.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고학을 했다. 방과 후에 젓소를 먹이고 우유를 배달하고 밭에서 풀을 뽑았다. 심지어 변소 소제, 거름 치우는 일까지 하였다.

길선주 목사의 부흥회에도 참석하였고, 양전백 목사의 설교도 계속 들었다. 그러나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주일이면 선천 북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생활에는 익숙했었지만 믿음은 없었다.

방학 때 학우들과 전도대를 조직하고 대장이 되어 마을을 찾아 다니며 전도를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확고한 신앙은 없었다. 어느 날 학교 가까이 있는 수청고개 밑에 있는 냇가를 거닐었다. 그 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심한 회의가 느껴졌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런 의심을 갖고 냇가를 거닐다가 마음속에서 놀라운 영음을 들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니라’ 순간 마음에 확신이 왔다. 그 날 이후 윤선의 생활은 달라졌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굳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신성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한 가지 결심이 섰다. 아내를 공부시키는 일이었다. 마지막 겨울 방학 때 선천에서 장평까지 팔십리 길을 걸어서 집에 갔다. 아내를 데리고 선천읍으로 다시 돌아와 방 한 칸을 얻어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기초 학문을 가르쳤다. 그리고 봄에 보성 여학교에 입학시켰다. 아내의 이름 김애련을 김영선으로 개명하였다.

1927년, 윤선은 신성 중학교를 졸업하고 숭실 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1931년에 4학년 졸업을 하자 그 해 곧바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신학생 시절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많이 하였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학우들 사이에서도 박목사로 불리우리만큼 경건파로 알려졌다.

새벽엔 일찍 일어나 모란봉에 올라가 기도하였다. 신학교에서 기도



동지회를 만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집회에도 참석하였다.

1934년 평양신학교 제29회 졸업생이 되었다. 그 해 9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돈이 없어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협조자가 나타나 도와 주었고 모자라는 돈은 왕길지 선교사에게서 빌렸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왔다.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동경으로 갔다가 고베로 가서 지지부마루라는 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고베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는 17일간 걸렸다. 그 기간 동안 계속 요한계시록을 암송하였다. 그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을 때 계시록 18장까지를 암송하였다. 나머지 19장에서 22장까지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암송하였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936년 신학연구원을 졸업하고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해 8월에 귀국하여 평양신학교에서 성경 원어 강사로 2년간 봉사하였다. 이 무렵 총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표준 주석 편집부에서 박형룡 박사를 도와 일하였다.

1938년 8월, 2차 유학 길에 올랐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년간 밴틸 교수의 지도하에 변증학을 연구하였다. 1939년 일본 동경에 머물면서 총회 표준 주석 집필을 계속 도왔다. 1940년 3월에 귀국하였으나 한국 교회는 신사 참배에 빠져 있었다. 반대하던 주의 종들은 검속이 되고 있었다.

박윤선은 만주로 갔다. 봉천에 있으면서 우지황 교회를 맡아 목회를 했다. 복능에 있는 만주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쳤다. 이때 박형룡 박사는 일본에서 와서 함께 강의를 하였다.

1944년 4월부터 주석 집필에 전념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까지 머물다가 8월 27일에 가족과 함께 평북 강평동 고향으로 돌아왔다. 4개월간 거하다가 1946년 2월에 고향을 떠나 3월 1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 해 5월 출옥 성도 한상동 목사의 방문을 받고 그의 뜻을 따라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하였다.

1946년 5월 진해에서 경화동 교회를 시무하면서 6월 23일 신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성공리에 마쳐졌다. 이것이 출발이 되어 9월 20일 부산진 일신학교에서 고려신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1947년 10월 14일, 박형룡 박사가 고려신학교 초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는 48년 5월 교장직을 사면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1948년 5월 박윤선 목사가 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한상동, 한명동, 이상근, 박손혁 목사 등이 강사로 도왔다. 선교사로 한부선, 마두원, 최의손, 함일동목사 등이 강의를 하였다.

고려신학교는 과거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된 분들이 해방과 함께 출옥하여 세운 학교로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한국교회의 과오와 회개를 외치고 한국 교회를 정화하기 위하여 세워진 학교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성령의 감동과 은혜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1953년 10월, 박윤선 목사는 화란 자유대학에 유학을 떠났다. 유학 도중 1954년 3월, 부인 김영선 여사가 교통 사고로 별세하였다. 향년 49 세였다. 5남매를 하나도 성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였다.

그 해 8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모이는 국제 기독교 연합회 제2차 세계대회에 한상동, 이약신, 박손혁목사 등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이때 페이드 신학교에서 한상동목사와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하여 10월에 이화주여사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룬 것이다. 박윤선 목사는 고려신학교 초창기부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육성시켰다. “고려신학교” 하면 박윤선, “박윤선” 하면 고려신학교를 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0년 여름 성수 주일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고려신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14년간 몸담아 왔던 학교를 떠났다.

1961년 1월 서울 서대문 동산교회에서 3년간 목회하였다. 그러면서도 성경 주석 집필을 쉬지 않았다.

1964년 3월, 서울 총신대학 7대 학장에 취임하였다. 1969년 3월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원장이 되었다. 1968년 6월,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에서 한성 교회를 개척하였다.

1980년 11월에 수원 합동신학원 원장이 되어 1985년 2월까지 봉직하고 1985년 3월부터 동 신학원 명예 교장으로 일했다.

박윤선 목사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주석하였다. 완간된 주석은 총 20 권으로 출판되어 60년대 이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중요한 지침서로 이용되고 있다.



1988년 6월 3일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계속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병중에 있으면서도 많은 동료 후배, 제자들의 병문을 받으며 위해 기도하고 대화하였다. 또 자신의 조그마한 과오도 다 용서를 구했다.

1988년 6월 30일, 그는 세상에서의 일을 끝내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는 후회 없는 한 생애를 마친 것이다.

7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측 합동신학교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가족들은 일산 기독교 묘지에 안장하기를 원하였지만 신학교 당국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수원에 있는 합동 신학교 뒷산에 안장되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주경 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큰 발자국을 남겨 놓고 훌훌히 세상을 다녀갔다.

그는 1979년 10월 9일, 총신대학 강단에서 성경 주석 완간 감사 예배시에 40년 주석 집필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나의 주석 저술 동기는 나 자신이 먼저 성경을 깨닫고 깊이 안 후 확신 속에서 전하고자 함이다. 나의 마음은 항상 성경에 머물러 있었고, 성경 주석 저술에 기쁨이 있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만큼은 확신하고 있으며, 또 내가 아는 그것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불타고 있었으므로 계속 붓을 들게 되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였고 성경 속에서 실천적 삶을 살다가 떠났다. 정말 귀한 생을 사신 분이다.

❁ 표지그림 ❁

## 감상

(어느 목회 현장을 연상하며)



## 복된 목장

최 석 진

(개혁주의신행협회 사무국장)

소중한 단별 신사복  
흠스럼게 구김살져도  
그런 건 아예 아랑곳 없이  
양떼들의 소원을 일신에 짊어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자  
간절함과 경건됨이  
저 구김살만큼이나 응결되어  
모두들 절로 무릎 꿇는다.

찬송 부르다 감격하여  
눈시울에 이슬이 맺혀  
가사를 더듬거려도  
아무도 그를 탓하는 이 없고  
오히려 함께 감격의 찬송으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를 만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그 은혜, 그 성품, 그 영광...

열화 같은 정열의 부르짖음  
두 줄기 눈물이 주루룩  
스코올(squall)의 시원함이며  
다시 그 두 줄기 눈물이  
쌍무지개로 변하고  
그 찬란한 저 너머로  
천국의 영광이 보인다.

미소 띤 얼굴  
하늘의 평화 깃들었고  
의분할 때의 그 위풍  
주의 위엄 번득임이며  
그 두 모습으로  
양떼와 고락을 같이하며  
그릇길 바로 인도하니  
그 목자에 그 양떼들  
하늘의 은혜여! 땅의 축복이여!